

설렘 속 입학·개학... “등교 이어졌으면”

도내 각급 학교 어제 새학년 학사일정 시작
 가파초 ‘나홀로 입학’... 신입생 ‘0명’ 3개교

제주도내 모든 학교가 2일 입학·개학식을 열고 2021학년도 1학기를 시작했다. 코로나19가 여전한 가운데 올해는 개학과 동시에 등교수업이 이뤄졌지만 밀집도 2/3가 유지된 대규모 학교 36개교의 일부 학생들은 올해도 집에서 ‘온라인 개학’을 맞았다.

올해 입학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면서 신입생 50명 이내 학교에서는 학부모를 포함한 100명 이내로, 신입생 50명 초과 학교는 학부모 없이 학교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거리두기 입학식이 열렸다.

이날 입학식에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못내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한 모씨(삼성초 학부모)는 “첫 아이라 입학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 할머니·할아버지도 와서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같이 못 들어가게 돼서 아쉽다”고 전했다.

반면 광양초등학교 신입생 29명은 이날 엄마 또는 아빠와 함께 입학식에 참석했다.

홍지환(1학년) 어린이는 “학교에 오니까 너무 좋다. 친구들과 함께 놀고, 좋아하는 과목 공부도 하고 싶다”

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욱화 광양초 교장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오늘 등교 맞이를 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고, 입학식도 할 수 있어 가슴 벅차다”면서 “올해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등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접종 계획은 미정인 상황에서 등교에 따른 감염 불안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신경을 많이 쓸거라 본다. 믿고 보내는 마음이 크다”면서 “아이들을 생각하면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매일 등교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

다”고 말했다.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2단계까지, 고등학교 3학년은 2.5단계까지 매일 등교하게 된다. 한편 이날 가파초는 4년 만에 1명이 입학했다. 병설유치원생도 1명 입학하면서 재학생 6명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이 열렸다. 추자초 신앙분교장과 가파초 마라분교장, 한림초 비양분교장은 올해 신입생이 없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2일 제주시 광양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입학식을 마친 어린이가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4·3특별법 개정 매우 뜻깊은 진전”

문 대통령 2일 국무회의서 후속 조치 등 의지 표명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서 매우 의미 깊은 법안들이 통과됐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또한 해원과 화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농업기술원 감귤 유전자원 530종 확보

지난해 4점 추가 확보 성공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생명자원 보존기관으로서 2020년 감귤 유전자원 4점을 추가 확보해 현재 총 530종을 보존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도농업기술원이 지난해 확보한 자원명은 ‘C4상도조생’ ‘C사과가시34호’ ‘달코미’ ‘실향’ 등이다. ‘C4상도조생’과 ‘C사과가시34호’는 종자가 없는 감귤 품종을 육성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달코미’와 ‘실향’은 각각 12월과 1월에 수확하는 고당도 만감류 품종으로, 농가 보급을 위해 모종을 육성 중이다. 도농업기술원은 유전자원의 수집

과 특성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품종 육성 및 농가의 품종 선택 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보존 중인 자원에 대해 과실 특성, 기능성 물질 함량, 병 저항성 및 단·다배성 등을 정리, ‘감귤 유전자원(2020)’이란 제목의 책자 300부를 발간해 유관기관 및 농업인에게 배부한 바 있다.

감귤야열대연구과 정승용 농업연구사는 “앞으로 다가를 변화에 대응할 육종 소재로서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제주지역에 알맞은 품종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 밝혔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특별법 개정 핵심과제 공론화 ‘암초’

도의회,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민의견 수렴 차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달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핵심 과제를 마련하고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민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110개의 세부 핵심과제를 도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도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고 이달말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핵심 과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5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도민 설문조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일정도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는 현행 제주지사 임명하고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포함돼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2019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추진했으나 제도의 도입은 특별자치도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교육위원의 피선거자격 완화와 의

국의료기관(영리병원) 특례 폐지도 포함돼 있다. 관광산업 분야에는 골프장임대요금심의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 가능, 현행 기관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따라 구체적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도민의견 수렴에 다소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소 늦더라도 충분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도에서 직접 생산하는 **팬 전문 제조업체**
보조사업 전문 시공업체

(주)팜그린텍

Farm Green Tech 공기교반기(130W)

특허받은 모터캡 사용으로 모터 2중보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천장형환풍기(330W)

특허 제10-2182942호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환풍기(800W)

프레임 보강 셔터 사용 -내구성 향상

고풍압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6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Farm Green Tech 송풍팬(130W)

모터내 TP(모터보호) 기능 탑재

(주)팜그린텍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226 T. 064)732.0440~1, F. 064)763.0440